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News 2011.4

017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건축가의 생존

과도한 디자인 버려야 도시 경쟁력 생긴다



시론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_송진희

취임사

전남·전북건축사회 신임회장

회고문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전임회장

건축과 도시계획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_김현숙

서양의 주거문화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주택공급(과제)-1_남기봉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꽃의 도시 '피렌체'_조용준

삶과 건축

건축가의 생존_윤기병

건축도시시책

과도한 디자인 버려야 도시 경쟁력 생긴다_정기석

설계경기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사업 건축설계경기
광주 선우학교 등 3교(수원8초, 신웅중) 학교신설 설계공모

지리산 智異山
화엄사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송진희 교수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많은 국가에서는 건축과 디자인을 하나로 묶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전문잡지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 즉 공학과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건축물이 탄생한다고 보고 있다.

광주에는 도시역사상 가장 큰 문화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14년이면 지역민들에게 광주의 중심지로 각인된 금남로 시작점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동안 문화도시란 명칭은 유럽의 어느 멋진 도시에나 붙일 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우리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대표적 건축물을 생각하면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타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점철되었던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해방 후 세계 최빈국의 시대상황 그리고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의 수도집중화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화도시에 걸맞은 건축물을 위한 조건

아키텍처라는 단어의 뒷부분인 텍처에는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서 기술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은 내부적 공간배치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오랜 도시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스며있는 고색창연한 건축물들이 많아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도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내적으로 훌륭한 건축물도 외적인 디자인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건축과 디자인을 하나로 묶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전문잡지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 즉 공학과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건축물이 탄생한다고 보고 있다. 시야를 넓혀 보면, 단위 건축물만이 아니라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초라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디자인이다. 전국의 도시거리는 원시적이며 현란한 유흥업소 간판이 지배하고 있다. 다양한 야간 조명은 감성을 일깨우는 은은함보다는 눈뜨기가 어려울 정도의 조도와 휘도로 국적도 없는 야간경관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개인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천편일률적인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하는 등 무모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공 개념의 중요성

외국인들이 우리의 도시이미지를 평가한다면 어떤 것인가? 내 가게 앞이라고 커다란 광고판을 세워놓아 사람을 통행이 불편하다.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의 도시미관은 생각지도 않고 내 간판이 더 잘 보이라고 무조건 크게, 여러 개 달아 놓는다. 유흥업소 벽면에는 국적불명의 사비비 명화가 판을 치고 있다. 건물의 파사드 디자

인과는 관계없이 현수막을 달아놓아 건물이 조각이불 같은 누더기가 되어있다. 건물주 구미에만 맞는 조형물을 세우다보니 세운 다음날부터 걷어내고 싶어지는 게 한 둘이 아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공 개념'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혈육을 증시한 우리는 어릴적부터 '공 개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 가게 간판 하나 하나가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일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디자인을 상업적 이윤추구의 수단 정도로 인식한 반면, 디자인의 사회문화적 역할은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 사회의 구성요소는 공공이며 도시는 공공성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실체이다.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된 사회이다.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를 비롯해서 일찍이 1815년 런던의 만국박람회가 열리고 독일의 바우하우스 디자인이 시대적 가치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적으로 유럽인들은 우리보다 한 세기 정도 빠르게 디자인에 몰입하였다. 그들의 디자인은 '공 개념'에서 출발한다. 주변의 도시미관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uer Alle)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들이 강조하는 공공성이다.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여행을 하다보면 유럽의 도시 건축물은 유난히도 차분한 느낌을 받게 된다.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이 대부분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색상이나 형태면에서 시대적 전통과 통일감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도심상가나 주택단지 등 권역별로 건물의 높이가 대부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들쭉날쭉하지 않은 것도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리고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나 건물 앞의 사인물을 살펴보면 매우 차분한 이유를 이내 발견하게 된다. 규모와 위치, 색상 등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통일감을 준다.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간판의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것이다. 비슷한 규모로 통일된 가운데 삼점마다 다른 디자인 간판은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Konsonanz im Disonanz)을 충분히 만족하는 개성 있고 예술적인 간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시민으로서 '도시의 공공성과 디자인을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광주가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간판이든, 거리가구든 또는 삼자공원이든 모든 것에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짐 보다 쓰임이 중요하고, 더함보다 나눔이 중요하며, 채움보다는 비움이 중요하다'는 빈자의 미학이 다른 아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디자인과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축은 바로 공학과 예술의 만남으로서 하드웨어인 건물에 멋과 향기를 불어 넣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건축가들과 디자인이너들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럭시움에너지는?

B I P V 태양광 전문 업체
엘지 Z : I N 창호 전문 업체

알파시스템창호는?

커튼월, 단열창호 전문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 정부조달 등록업체

다양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로
견고하게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알파시스템창호
ALFA SYSTEM WINDOWS&DOOR
www.alfawindow.co.kr
TEL 0621 943-6801, 6802
FAX 0621 943-6809

전남건축사회장 취임사

회원님들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남건축사회로 ...



윤문곤 건축사
전남건축사회 제26대 회장

우선 부족한 저를 전남건축사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에게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겨울의 추위는 평년에 비해 특히 매서웠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건축업계의 혹독하기 짝이 없는 불황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겨울 추위는 봄이 다가오게 되면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 건축업계의 불황은 언제 다시 호황으로 전환될지 그 주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앞에 처해진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은 어디까지나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근심걱정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임기를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여러가지 제도와 현행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회원님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축문화행사를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회원님들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우리 회원님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회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여 협회를 잘 꾸려 나가겠으며,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지역과 우리와 비슷한 지역의 시도 회장님들과 업무를 협력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우리의 권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그동안 협회를 위해 열성적으로 일하신 김강수 회장님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드리며 가정과 사업장위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건축사회장 취임사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전북건축사회를...



이성엽 건축사
전북건축사회 제24대 회장

존경하는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다시 우리 협회 제24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3대 회장으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협회 운영에 최선을 다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급변하는 건축환경에 대응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사의 위상 강화와 회원의 권익보호, 효율적인 협회 운영 등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2년 동안 노력을 다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기시적인 효과는 적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협회 조직을 더욱 강화 시키고 회원을 위한 협회로 성장할 기틀을 굳건히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라북도건축사회의 46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성장과 함께한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격변하는 세월 속에서 일어났던 고통스럽고 자랑스런 일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46년전 우리 나라 국민소득 100달러 보릿고개 시대의 삶과 현재 2만달러 시대를 함께 살아온 우리는 현재의 얼굴로 과거를 함께 보는 역사적 사회의식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정보 지식사회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축기법법의 제정을 계기로 종전의 공급위주의 건축정책에서 새로운 건축의 이념과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축문화시대가 도래하여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미적 요소와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전반에도 큰 영향

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사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회원들에게 국제교류와 선진지 견학, 교육 등을 통하여 스스로 미래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회원들 간의 소통과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회원을 위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의 건축환경과 우리 사회의 제도 변화로 건축사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발전된 우리 사회가 있기까지 건축사의 역할과 사회 기여도가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해법 찾기에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건축사님들이 쌓아 놓은 자랑스런 건축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김의 리더십과 역동적인 추진력으로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협회를 만들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설계, 감리, 감정
- 환경디자인면허
- 지구단위계획 다수수행
- 스페이스프레임 특허출원중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강현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36-13번지 3F TEL_062)653-8122 FAX_062)654-8123



광주건축사회장 회고문

광주건축사회장을 마치며...



신정철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제12대 회장

으로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과 관용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회장 재임기간동안 20여년의 세월동안 받은 사랑의 빛을 갚겠다는 심정으로 회장출마를 결심하고 제 나를 최선을 다해 동분서주하며 오늘까지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원들께 사랑의 빛을 갠기보다는 더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산적한 과제들을 뒤로 한 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는 지난 총회를 끝으로 회장이라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가 건축사로 살아온 소중한 가치는 모두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가치로 진정성과 철학을 담보한 건축사의 정체성을 부단히 갈고 닦아 세상이 원하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세상과 사람을 섬기며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길 것이며 우리의 자긍심을 세우는 문제, 먹고사는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생각

은 우리 건축사대움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이 시대와 나아가서 미래의 세기를 주도할 감성의 패러다임을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가치!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들은 우리 앞에 있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지켜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힘에 겹고 어려움이 뒤 따르다 할지라도 건축사대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길을 달게 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A.까뒤는 "무익하고 희망 없는 일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희망과 꿈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날의 형벌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가 힘들어서 내 동료가 편해질 수 있다면 아니,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온유함으로 광주건축사회와 회원들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향후 2012년은 광주건축사회가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를 준비하여 치러야 하는 해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건축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광주 건축사회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 건축계의 중심에 서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광주의 저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미려한 힘을 보태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사회원의 사랑을 받았던 회장으로서 건축사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현상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건축사회장 회고문

전남건축사회장을 마치며...



김강수 건축사
전남건축사회 제25대 회장

이 나이에... 그러다가 세월이 간다.

그저는 중에 맡겨진 전남건축사회 회장이라는 직분은 게으른 나를 돌이켜보게 한,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한 목표가 생긴 그런 일이었다. 더구나 인근 지역회에 비교해 우리는 여러가지가 열악하여 뭔가를 더 해보자는 의욕이 솟는 거였다.

처음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서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하나 계획과 실천을 해 나갔다. 그러나 지역회라는 조직이 꿈은 있으되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제약이 많은 너무나도 빈약한 조직이었다. 그렇다고 산타령, 인력타령으로만 있기에는 성에 차질 않아 직접 독려하고 계획하고, 움직여 나갔다. 많은 생각보다 하나의 실천이 우선해야 되리라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

없는 예산을 모아 배를 타고 전 회원과 함께 제주행을 택했고, 제주인의 건축관과 실천을 위하여 직접 집을 지었다는 제주대 김태일 교수의 집념에 많은 동료들이 공감하였다. 인천 도시축전에 맞추어 송도 신도시의 건축현장을 둘러보는 우리

들의 눈빛은 매서워져 있었고,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때는 다들 한마음으로 서로를 축하하였다.

이렇게 2년이 흘러갔고, 이제는 뜨거운 여름날 새벽버스에 엉덩이가 젖는 일이 드물 것이다. 애 하필이면 내 임기가 끝날 즈음에 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한 시간 단축 되는가, 좀 일찍 완공하시지...

이제 또 다른 꿈을 만든다.

올해의 목표는 수영을 하는 것이다. 그냥 헤엄치는 게 아니고 박오 선수의 멋진 폼대로 수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번 푸켓에 가서 날씬한 수영복을 입고 물살을 가르던 모 회원들을 능가하는 것이다. 아! 그 옆의 아줌씨를 노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침 햇살을 맞는다.

그렇다.

회장이라는 영광도 우리 회원들이 부여하였고, 임무수행에도 다 회원들의 성원이 있었다. 아젠 하나도 평화원으로 다시 돌아가 묵묵히 내 일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젠다에는 힘을 보탬 것이다.

헌함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짐을 내려놓은 그런 마음이었을까? 즐거우면서도 그냥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 어찌피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하나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 법, 수영과 함께 다음 목표는 무엇으로 할까하는 기대도 하여본다.

전북건축사회장 회고문

전북건축사회장을 마치며...



이성업 건축사
전북건축사회 제23대 회장

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발자취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뒤돌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회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와 함께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어 각종 협회 회의에 참석해주시고 협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임원 이사님들과 지역건축사회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건축사의 인지도를 높여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2009년도 건축의 날 행사에 전라북도지사를 초청하여 전라북도 건축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사님의 특별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전라북도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건축인에게 지사님의 표창을 수여 하도록 하여 건축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지역 언론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사 협회와 건축사의 역할을 홍보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사업으로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여 각국의 건축문화 이해와 회원간의 친선을 증진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협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과 중국, 독일이 참여하는 제1회 국제 건축작품전을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열어 건축사는 물론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2010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 회원 건축작품전과 서화전, 설계사례 발표, 건축영화 상영을 주관하여 '건축문화제'라는 타이틀로 처음 실시하는 행사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사회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2009년도 독거노인 20세대에 유류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에는 독거노인세대에 설치할 화재감지 경보기 300대를 완산소방서에 기증하였고, 아이티 지진피해자 돕기성금도 기탁한바 있습니다. 건축협회와 농촌건축학회와 같은 건축 관련 단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전북건축사회가 2010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대한건축사협회장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미래에 전북 건축문화 발전에 튼튼한 반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1세기 건축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은 이제 한 나라의 문화수준과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국민의 문화적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과 향상과 문화적 혜택 증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건축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협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제1화 : 일제강점기 가로정비에 의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김현숙 교수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본고는 일본도시계획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1993년 성곽도시 전주에 있어 성곽과 상업공간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및 1994년 성곽도시 전주에 있어 시구개정에 의한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저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전주의 도시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본인연구를 기 발표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5회 연재 기획)

성곽철거 이전의 공간구조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의 56개 군현을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있던 조선의 3대 지방도시 중 하나였다. 전주의 공간구조는 부성의 4대문을 연결하는 십자로를 중심으로 동서도로의 북측에는 객사가, 남문에서 동서도로에 연결된 남북도로의 서측에는 전라도를 총괄했던 감영이, 동측에는 전주부를 관할했던 부영이 입지하여 성곽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관아 주변에는 관인과 향리인 아전(衙前)의 주거지가, 성곽 밖으로는 서민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동서남북의 4대문밖에는 자연발생적 시장이 번성하여 상업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진안·무주로 이어지는 동서외장은 9일장으로 한약재가, 김제·부안·서해안으로 이어지는 서문외장은 7일장으로 소금·어물, 삼례·한양으로 이어지는 북문외장은 4일장으로 포목, 일상의 중심지인 남문외장은 2일장으로 생활용품과 곡물이 특화품목으로 취급되었다. 성문 주변은 주변 지역과의 도로의 결절·분기점이며 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각 지역의 특산물이 집결, 교환, 매매되기에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성곽철거와 가로정비

전주부성의 공간구조는 1907~1908년에 시행된 전주-군산 연결도로개설에 따른 성곽의 철거에 의해 크게 변했다. 강화도조약에 의해 7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의 주요기능은 군옥평야에서 수확한 미곡을 오오사카에 반출하는 것이었다. 개항이후 일본인의 농토점유는 군옥평야에서 전주평야로 확대되었으며, 이곳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군산항까지 직송하기 위한 미곡수송로로 개설된 전군도로의 종점을 성곽서문에 연결시킨 후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서측성곽 절반을 철거하였다.

1911년 도로규칙 훈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되던

도로정비사업은 1912년 10월 가로의 개설과 정비를 목적으로 한 시구개정사업이 훈령으로 발표되면서 시구개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도로정비사업은 먼저 성곽내의 동서남북문을 +자형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이 간선도로에 연결된 경찰서, 재판소, 도청, 우편국 앞 도로의 신설 혹은 개수였다.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기존의 간선도로를 노폭 7.9m로 확장하고 하수구 및 노면정비도 행하였다.

1913~1923년에는 전군도로의 개설시 성벽이 철거된 북문-서문-남문간 성곽 및 남문에서 경계전에 이르는 구간이 도로로 정비되었으며, 전주-익산간 경변철도가 개통(1914년)됨에 따라 역이 위치한 고사동에 고사로가 개설되었다. 1924년~1933년에는 경원동, 고사동, 다가동을 횡으로 관통하는 폭 9.1m의 도로와 전동, 중앙동, 고사동을 종으로 관통하는 폭 8.2m의 도로가 정비되었다. 1934~1937년에는 주요 도로의 포장 및 개수공사가 행해졌으며, 노송등으로 이전한 철도역 일대를 중심시가지와 연계시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문에서 역에 이르는 368m의 도로를 폭원 22m로 개설·포장하였다.

가로정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4단계에 걸쳐 시행된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중심부의 격자형 가로망은 거의 정비되었다. 험스럽고 굴곡이 많은 기존도로는 노폭확장, 측구시공, 포장공사 등에 의해 근대적 도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구비하였으므로 그 대부분이 현존하고 있다. 시구개정사업시 기존의 간선도로가 중심축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곽철거 전에 성내와 주변지역의 연결은 성곽의 4대문뿐이었으므로 성곽철거 후에도 주변지역과의 연결도로는 이 +자간선도로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사한 가로망임에도 불구하고 시구개정 이전에 나타난 강력한 중심지향적 공간구조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먼저,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남북간선가로의 확장개설에 의해 전주부성의 중심공간이었던 객사는 도로의 직선화를 이유로 동익(東翼)이 철거되었다. 객사주사(主舍)는 본관과 양익(兩翼)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간선가로의 중앙교차점으로부터 북문에 이르기까지는 객사 좌측으로 도로가 있었으나 남문에서 북문까지 직선도로화가 감행된 것이다. 그 후 객사는 본래의 기능을 잃었으며 공개(空家)로 남게 되었다. 또한 가로의 확장선상에 있던 감영과 부영의 정문 및 부속건물 등이 철거되었다.

서문에서 동문에 이르는 동서간선가로는 상업가로로서 정비되었다. 성곽철거에 따라 서문외장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이 성내로 진출하면서 상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영 면적 12,000평은 5,100평의 도청면적으로, 부영 면적 7,000평은 791평의 시청면적으로 축소되었다. 나머지 부지의 대부분이 상업용도로 전환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공공용지의 매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문외장에서 중앙동(大正町通)으로 진출한 일본인 상가는 금융기관, 여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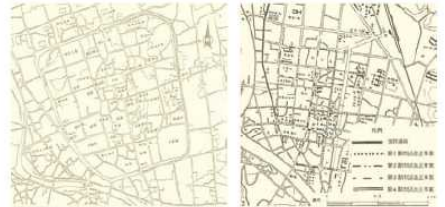
1912년 전주 대정거리



1928년 전주 대정거리

무소 등과 연계되면서 전주 최대의 번영상가를 형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서문외장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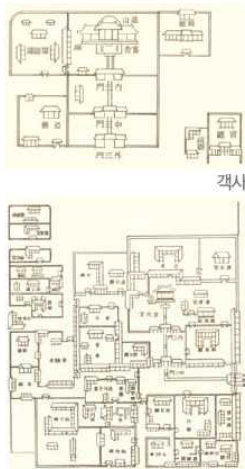
가로정비에 의해 도시공간의 중심성이 상실된 것은 동서간선가로에 면한 객사의 남측부지 및 감영과 부영의 북측 부지가 매각되어 상업지로써 용도전환됨에 따라 각 공공용지가 활성화되어가는 상가에 의해 상층 격리된 점과 공가로 남겨진 객사가 그 중추적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 점에 기인한다. 더욱이 1931년 전주안내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청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관청이외의 공공건물인 우체국, 경찰서, 파출소, 재판소, 전매국 등과 금융시설 등이 시가지 전역에 분산배치되어 이들 시설과 간선도로를 연



1911년 전주 측량도 1938년 가로현황과 사업



1931년 전주 안내도



객사



1870년대 전주부성의 병풍화



객사

1910년대 남문시장

결시하기 위한 기존의 격자가로의 확장 및 개설·정비가 이루어짐으로서 점점 더 도시의 중심성이 약화되어 갔다.

또한 제4단계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북문에서 철도역에 이르는 넓은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시가지의 중심이 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철도역을 거점으로 시가지의 중심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성곽외 주변지역을 향해 퍼져가는 도로구성에 의해 시가지의 골격은 외연화되어 갔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외연화 계획은 제2화에서 설명할 1938년의 전주시가지계획에서 본격화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주택공급(과제) -1

남기봉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양과는 다른 의미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서양의 주거 문화를 알아보고자 '서양의 주거문화'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이 번호부터 2회 연재로 독일건축의 전문가인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의 원고가 게재된다.

동서로 분단 된지 45년 후 통일된 독일, 한민족이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도 잠시, 그동안 분단에 의해 가려진 현실문제점들이 하나 씩 눈앞에 나타난다. 냉전시대 외부장벽은 무너졌지만 그동안 서로 다른 체제가 만들어 낸 또 다른 장벽 즉 경제사회적 격차라는 새로운 내부 장벽이 나타난 것이다.

이 글은 통일 전 동독인들의 주거실태를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독일의 대책과 문제점들을 열거함으로 비록 남북의 실정이 통일 전 독일 상황과는 차이점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당면하게 될 남북통일 이후를 준비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가정 공동체 형성(1934~1942)

통일 전 동독의 총인구는 1,670만명이며 가구 수는 6백 3십만, 총 주택 수는 6백 9십만 호로 전 인민의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동독정부는 발표한다. 동독의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27㎡에 달해 부유한 이웃 서독형태의 1인 평균 32㎡ 주거면적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공산정권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냉전시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각 시키려는 의도로 공개하는 공산국가의 통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통일 후 확인되어 그동안 공산국가가 주도한 경제구조에서 가려진 사회적 문제점들이 하나씩 부각된다. 통계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 전, 가구수와 주호수를 단순 비교해 동독 인민을 위한 주거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동독인들의 주거문제는 통일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거져 나오며 통일 후 동서 차별 없는 평등권과 서독 형제와 동일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동독주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진다. 무엇이 문제인가?



2차대전 당시 파손된 동독 주거단지내부 사레

동독인들의 주거환경

공산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산다고 알려진 동독, 통일 후 확인된 현실은, 주택의 42%는 이미 1919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서독의 19%에 비교해서 노후 된 주택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식 경제력으로는 건축 된지 이미 60년도 넘는 노후된 주택을 유지보수 관리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 해 방치되고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인민들이 1945년



통일독일 수도 Berlin 사진 상부 서Berlin지역 밀집된 전통 주거지역, 사진하부 동독은 국경과 인접시켜 공동주택신축을 집중함. 동Berlin은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2차 대전시 파손 상태로 주거지역이 방치됨.



동독 내 주거지 유지관리상태

종전 당시 파괴되고 손상된 주택을 응급조치한 수리 수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전체 주택의 1/3 이상은 실내화장실이 없이 층별 혹은 실외에 마련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은 전체의 47%정도지만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없거나 작동불능으로 창문을 여닫는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60년이 넘는 노후주택의 절반정도는 욕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이웃 서독형태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졌다.

유형별 주거환경

유지관리 상태를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양호한 편에 속하는 공동주택은 9%에 불과하고 51%는 파손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철거를 요한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의 30%는 양호한 유지관리 상태를 보이고 파손이 심각한 비율은 17%에 그친다. 참고로 대부분 공동주택은 전후 공산정권에 건축된 것이며 단독주택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도시 외곽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건축되어 공동주택보다 더 건축된지 오래된 건축물이다.

지역과 주거실태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주택의 유지관리상태가 더 양호하며 도시 규모가 클수록 주택의 파손정도가 더



동독의 단독주택단지

심각하다. 조사에 의하며 농촌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개인소유인 반면에 도시의 공동주택은 국가나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그동안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빚어진 결과에 의한 것이다.

40년 사회주의 공산정권체제 아래 증가된 것으로 발표된 주호수 증가부분은 신축에 의해 일부 증가도 되었지만 도시지역 주택의 상당부분은 기존 큰 규모 주택을 1~2실 적은 단위로 쪼개는 방법에 의해 주호수가 증가된 부분도 상당수에 달한다.

소유권 분쟁

한개 주택/부동산에 심지어는 3~4인까지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통일 후 발생된다. 2차 대전 발발이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 한 후 유대인은 독일 내 보유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해외로 도피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져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유대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후 개인에게 매매 되고 소유권도 양도된다.

2차 대전 종전 후 소련군이 점령하고 신탁통치하는 동독지역은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나치정권 협력자나 부유층 인사들의 재산권이 박탈되면서 이미 한번 유대인에게서 강탈하여 개인에게 매매된 그 사유재산이 또 다시 공산국가에 귀속된다. 이 재산은 후일 공산정권이 다시 개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제3의 법적 소유자가 탄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택 소유자가 통일 전 서독을 탈출함으로써 또 다시 동독정권이 재산을 압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게 됨으로 현 소유권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리하면, 나치에게 강탈당한 유대인 소유자, 나치 정권에서 매수했으나 공산정권에게 몰수당한 소유자, 탈출과정에서 재산권이 강탈된 소유자와 동독정권에서 주택/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받은 현재 소유자가 모두 동일한 주택/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결과 발생한 주택/부동산 소유권분쟁은 통일 후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꽃의 도시 '피렌체'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2010년 10월호)
2.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2010년 11월호)
3. 건축박물관 도시, 채코 '프라하'. (2010년 12월호)
4. 천년의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1년 1월호)
5. 음악의 도시 '비엔나'. (2011년 2월호)
6. 물위의 도시 '베네치아'. (2011년 3월호)

이 글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월간 '조선대학교 소식'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으며 매 회 제각각 역사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19세기에 4년 동안 통일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국가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피렌체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과 조각, 회화 등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무대가 되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바티칸궁의 시스틴 예배당 벽의 '최후의 심판'과 천정의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 베기오 다리 위에서 배아트리체라는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져 그녀를 주인공으로 신곡을 쓴 단테, 70세 나이에 로마 교황청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자구는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데카메론의 저자 보카치오, 피렌체 비행장의 이름을 붙인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프루치를 비롯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등의 찬란한 발자취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피렌체 지도

거기에 중세시대의 품격 있는 성당들이 있고, 5월이면 시가지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한 풍경 속에서 열리는 음악제와 피노키오의 목각인형, 패션, 가죽, 금, 은 등의 세공품 등도 유명하다. 1982년에는 유네스코가 이러한 이력을 인정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던 이 도시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관광원칙을 아주 깊게 실감할 수 있는 도시이다. 피렌체가 이 같은 매력의 도시가 될 수 있던 것은 15세기부터 300여년 동안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교황 레오10세와 클레메스 7세 등을 배출했던 메디치 가문의 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상속녀였던 안나 마리아 루도비카는 가문이 모은 모든 예술품을 피렌체에 기증하여 오늘의 피렌체가 있게 하였다.

피렌체 도시중심의 문화유산보고

피렌체는 도시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오모 성당을 중심으로 우피치궁과 산타시마,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산타클로체성당 등이 이를 감싸는 공간구조를 하고 있는데, 피렌체 관광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 부근에 있는 13세기 초에 도미니코 수도녀였던 안나 마리아 성당으로서 미켈란젤로가 13세 때에 참여하였다는 '상모 마리아와 세자 요한' 등이 있는 산타 마리아 노



산타 크로체 성당

벨라 성당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15세기에 건축가 브루넬리시키에 의해 재건된 메디치가문의 전용 성당이자, 지금은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묻혀 있는 산 로렌조 성당이 있는데, 도나텔로의 '청동설교단' 필립보 리피의 '수태교지' 등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보다 감흥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성당 뒤쪽에는 서민들의 일상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중앙시장이 있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16세기에 드로잉, 회화, 조각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의 최초학교로서, 지금은 갤러리아로 변한 델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켈란젤로의 명작 다비드상과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미켈란젤로의 성가족 등을 소장 하고 있어 가볼만 하다. 산 로렌조 성당 바로 앞 쪽에는 두오모 성당이 신축되기 전까지 피렌체의 대성당 역할을 했고, 단테가 세례를 받았던 8각형의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는데, 동, 남, 북 3곳의 청동문중에서 두오모 성당 쪽의 천국 문에 새겨진 조각은 르네상스 시대 걸작으로 유명하다.



두오모 성당

바로 옆에 있는 두오모 성당은 피렌체 공화국과 길드가 함께 지은 것으로서 13세기 말에 착공하여, 15세기 중반에 완성된 피렌체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다. 직경 42미터의 쿠플라를 설계한 브루넬리시키가 잠들어 있는 이성당의 8각형의 거대한 돔과 종탑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피렌체의 큰 바위 얼굴과 같은데,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주인공들이 10년 후에 이 성당 앞에서 만나기로 한 장면은 이 성당의 가치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브루넬리시키가 설계한 아치형의 고아양육원과 그 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아치형의 아누지아타 교회가 있는 산타시마가 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누추한 모습이지만, 브루넬리시키가 설계한 아치형을 그 후 미켈란젤로 설계에서도 사용되어 도시설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건축의 모델로 이야기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예술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도시

이곳에서 좀 더 가면 시민들의 공공 집회장이 열리는 94미터의 높은 탑이 있는 시노리아 광장이 있다. 피렌체 행정의 중심광장으로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표결하던 장소로서, 지금도 자주 행사나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광장에는 분수, 코지모 데 메디치 1세의 기마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모조품,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의 청동상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또 피렌체 공화국 시대에는 정부청사로 사용 했고, 현재는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베기오궁도 이곳에 있는데, 1298년 착공하여 16세기말에 현재의 모습이 된 청사 내부에는 많은 회화와 조각상이 있는 건물로도 유명하다.

바로 옆 아르노 강변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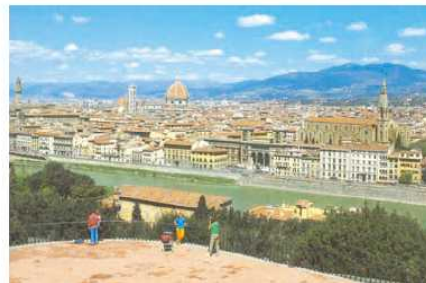
베기오 궁전

가문이 만든 우피치궁과 피렌체의 상징 베기오 다리가 있다. 16세기 코시모 1세에 의해 지어져서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궁은 2500여점의 르네상스시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계최대 르네상스 미술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2층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스케치, 소묘, 판화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에는 비너스의 탄생 등의 보티첼리 작품은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항상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단테가가 첫 사랑을 만난 장소로도 유명한 1345년에 건축되었던 베기오 다리는 두오모 성당과 더불어 피렌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베기오 궁전과 사이에 1킬로미터 정도가 바사리 회랑으로 이어져 있는 이 다리 가운데에는 금은 세공사 이자 조각가인 반베누토 첼리니의 흉상이 있다. 본래 이 다리는 대장장이와 푸숫간들이 거주했으나, 소음과 악취로 시민들의 비난이 일자, 16세기말에 보석과 금세공인들이 대신 자리하였는데, 다리 상점 위에는 귀족들의 통행을 위한 전용통로가 있어서 당시 귀족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일반 역사도시들과 다른 피렌체만의 매력

다리를 건너면 메디치가의 많은 예술품을 소장되어 있는 피터 궁전과 광장이 있는데, 이 궁전은 한때는 메디치가의 경쟁 상대였던 은행가 루카 피터가 메디치가를 누르기 위해 신축을 시작하였으나, 그가 죽은 후에 메디치가가 매입하여 완성한 것이다. 우피치궁에서 아르노 강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1294년 착공하여 1442년에 완성된 정면에 단테상이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성당에는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마키아벨리, 로시니 등이 묻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피터궁전의 위쪽 언덕에는 피렌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6세기 말에 군사적 목적으로 세워진 벨베데레 요새가 있고, 여기에서 강을 따라서 더 내려가면 남쪽기슭, 동남쪽의 작은 언덕에 미켈란젤로의 탄생 400주년 기념하여 세워진 미켈란젤로 광장이 있다.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본 시가지

모조품인 다비드 상이 서 있는 이 작은 광장은 항상 관광객들에게 그림을 판매하는 상인, 세계 각지에서 물려드는 여행자로 항상 붐비는데, 여기에서 피렌체 전경을 바라보면, 붉은색의 지붕, 아르노강, 베기오 다리, 두오모 성당 등의 풍경을 갖춘 또다른 피렌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피렌체는 일반 역사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감흥을 주는 예술적 분위기가 아주 풍부한 도시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건축가의 생존



윤기병 교수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기존 시장의 축소 문제 이외에도 생존을 위하여는 건물을 계획한다는 것을 넘어 보다 넓은 고객 서비스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미래 건축 실무는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최고 능력을 갖춘 작은 컨설턴트들의 네트워크를 수용하고 활용하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와 현실

건축계 특히 설계 분야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의 문제가 아니다. 2009년 건축사 협회 통계에 의하면 연 5건 이하로 프로젝트 수주를 한 업체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절반 이상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력 배출에 의한 탓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근본적 원인은 시장의 축소와 변화이다. 고도 성장기를 넘어 저성장률을 기록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현실과 함께 국가 경제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부터 10% 전후로 축소될 여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도시화의 과정은 마무리 됨에 따라 도시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가의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이 세계 최고의 저출산이라는 불임사회를 만들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인구의 감소는 전체적 건축에 대한 수요 감소의 트렌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에서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소수 사무소들에 의한 독점 또한 전체적 설계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지난 해부터 급격한 설계 시장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 15년간 국제적 저공리와 함께 중국 등에 의한 값싼 생활품의 공급 등에 의한 저 인플레이션 등의 결과 풍부하여진 유동자금은 전 세계의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2009년에 불어 닥친 금융 위기는 야심 찬 전 세계적 개발 프로젝트의 취소 및 연기의 결과를 놓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두바이를 들 수 있으며,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물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 건축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설계에 의해 사무소 운영을 하여 왔던 선진국들의 설계 업체는 확장된 회사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의 진단과 건축가의 미래예측에 대하여 영국 건축가 협회 RIBA의 싱크 탱크인 Building Futures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특히 영국 내의 설계 물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다. 생존을 위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야 하는 상황이

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되지 않는 중형 사무소의 미래를 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영국 내 건축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8년 이래 40%가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형 사무소의 경우 현지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은 사무소의 경우 해외에서의 실무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과거 15년간 도시개발이 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의 거품이 생겨났으며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로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

국내외적으로 건축 설계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주문에 의한 생산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거의 모든 산업이 공장 생산 방식에 의한 대량생산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나, 유독 건축분야는 변화를 하지 못하였다. 수 차례 건축의 공업화에 대한 시도가 되었으나 모두 실패에 그쳤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분야만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성이 저하된 산업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주문에 의한 생산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완성된 주택과 건물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건축가와 대화를 통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건물로 완성하는데 따른 시간적 인내심이 적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과 함께 결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현실로, 건축 설계 시장의 확대는 어려운 것이 현재의 경제적 파급효과 속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의 대량생산 가능성에 대한 시도는 산업혁명 이후 수 차례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여지껏 실현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주문자 생산 방식의 발전과 함께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대량생산 방식에 대한 시도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반영하는 전시회로 2008년에 개최된 뉴욕의 현대 미술관 MOMA의 'Home Delivery: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가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60개의 프로젝트가 전시되었으며, 맨하탄 거리에 5개의 실제 크기의 건물이 지어져 전시되었다. 프리패브 디자인과 시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대량생산, 지속가능성, 이동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건축의 대량생산 문제를 다루었다.

즉, 보다 경제적이면서 빠르게 건물을 짓고자 하는 노력은 진행되어 왔으며, 소비자 또한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수요가 많다. 과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현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설계물량의 감소 이외에 더욱 커다란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 왔던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한 영역 축소이다. 산업혁명 이후 건축가는 예술과 기술 모두를 종합하는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영역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구조 분야로부터 다양한 설비 분야에 이르기까지 점차 전문화 된 분야에 의한 시장 장식이 진행되고 있다. 건물이 고도화될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건축가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성 확보 없이는 영역의 축소가 지속될 것이다.



사진 2. 2008년에 개최된 MOMA의 'Home Delivery: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 전시회

시장의 변화와 적응의 필요성 - 건축가의 정체성

최근 아일랜드 건축사협회 Royal Institute of the Architects of Ireland (RIA)는 자격이 있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200명 넘는 전문 인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최근 재해 상황에서 보듯이 공간 환경의 안전성이 사회적 중요한 문제로, 건축사의 권의 보호를 위하여 2009년부터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건축사의 전문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 벌어진 현상으로 건축사 자격증이 시장에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건축사는 건물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사회적 인식이 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건물 설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으며, 이는 건축 이외의 프로젝트, 즉 도시 디자인이나 다른 디자인 분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결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건축만을 매우 중시한 결과 도시, 조경 및 실내 등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경시한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 시장의 축소 문제 이외에도 생존을 위하여는 건물을 계획한다는 것을 넘어 보다 넓은 고객 서비스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고객에 대한 재정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타 건물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 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형 사무소의 경우 고객에 대한 상업적 접근 방식과 함께 다양한 컨설팅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중형 사무소는 규모 면에서 내부적으로 종합적이며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힘들다.

미래 건축 실무는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최고 능력을 갖춘 작은 컨설턴트들의 네트워크를 수용하고 활용하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스스로가 최첨단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심분 활용하며 작업을 하는 사무소로서의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cedek01@gmail.com



사진 1. RIBA의 미래 건축가에 대한 전망 보고서.

과도한 디자인 버려야 도시 경쟁력 생긴다



정기석 과장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디자인이 잘못된 도시의 폐해는 후세까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원시의 미학을 통해 신비와 순수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지켜온 도시임을 느낄 수 있게 하여 하늘과 땅과 물이 숨쉬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심속의 녹색자연을 통해 산책의 즐거움을 주어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해야...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디자인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도시들이 디자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회색도시들이 디자인으로 눈을 돌리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환경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아름다운 공간 만들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함께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공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작은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도시들이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과거 디자인에 대한 무지로 빚어졌던 디자인 재앙에 이어 디자인 과잉에 의한 제2의 디자인 재앙이 닥쳐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든다.

뚜렷한 목표 없이 대도시부터 작은 사골까지 획일적으로 디자인 공사를 벌이는 광경 앞에서는 일종의 책임감까지 든다. 경쟁적으로 무조건 눈을 어지럽히는 간판을 뜯어내고 화려한 버스정류장을 만든다고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체성이 없는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거대한 조형물들이 곳곳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모습은 결국 도시의 체증이 늘어나 비만으로 시달리는 무거운 도시로 변해간다. 이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지고 낭비 요소가 큰 과도한 디자인을 줄이고, 도시를 채우는 디자인에서 비율의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없는 디자인으로, 가볍고 여유롭고 숨통이 탁 트이는 체질 개선을 통해 디자인 다이어트를 시도해야 도시가 경쟁력이 생긴다.

조급증에 걸려있는 우리의 디자인 정책은 관 주도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은 소외당하고 걸만 화려한 도시의 허울에 신물을 느낄지도 모른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시카고 시청의 옥상 녹화 사례

계승해야 할 '우리에게만 있는 우리의 것'은 무엇인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디자인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 참여에 의한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움과 문화감각이 살아있는 열정의 도시, 관광문화 선진국들처럼 또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인식의 전환과 기존 틀을 깨는 시도가 있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 디자인이 잘못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사장되면 그만이지만 디자인이 잘못된 도시의 폐해는 후세까지 영향을 준다.



교차점을 중심으로 광장 녹색공간 조성 및 시설물 설치구간



뉴욕시의 공원, 광장, 거리 녹색경관디자인 개발사례

노 현상이 일어나 거리 곳곳에서는 디자인의 작은 시도들을 발견하게 된다.

건물 소유자들은 자기 건물의 외관을 정비하고, 집주인들은 집을 꾸미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듯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이나 거리를 꾸미기 시작할 것이다. 거리의 가로등 하나에서도 정서적 공감을 얻으려는 감성여행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우울함과 허무가 밀려오지 않게, 정치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도시의 분위기를 걷어내고 밝고 따뜻한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로 인해 새로운 문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도시를 개성 있는 접근법으로 되살려내 사람들의 자유와 낭만을 한꺼번에 담아내고 열정이 넘치는 곳, 자유를 업그레이드시켜 펄펄 나는 문화의 동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옹벽의 높이 3m이상일때 3단 이상 다단 옹벽 구성을 권장

따라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원시의 미학을 통해 신비와 순수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지켜온 도시임을 느낄 수 있게 하여 하늘과 땅과 물이 숨쉬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심속의 녹색자연을 통해 산책의 즐거움을 주어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도태되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한 방치해두다시피 했던 어두운 도시의 공공장소들을 재정비하여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 모두가 주인의식이 형성되면 자신들 주변 지역에 도미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외 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 독 료 입금 계 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 건축설계경기

시나리오는 크게 다섯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홍보영상관은 옛 '터'의 역사적 의미복원에 있는데 주변경관은 모두 당시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 진입광경을 지나 홍보영상관에 도착할 때 까지 주변의 현지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의식적 장소인 홍보영상관은 서구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근대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농민들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동, 주체적이었고 이 상황을 건축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전시공간을 지나 나타나는 내부의 중정과 추모관은 권력을 휘두른 하나의 체제와 이에 저항했던 농민군 개인을 암시하며 외부의 수성군 추모공간과 연계되어 당시체제간의 화해를 한다. 외부전시를 유도하는 집결지 상징비는 이 터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엄숙하고 숙연한 장소이며 출구를 통해 이어지는 최후 공간은 추모의 감정을 잠시 지속하며 관람자들의 가슴에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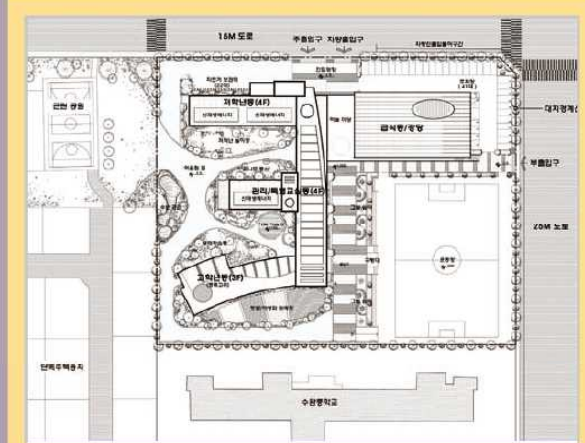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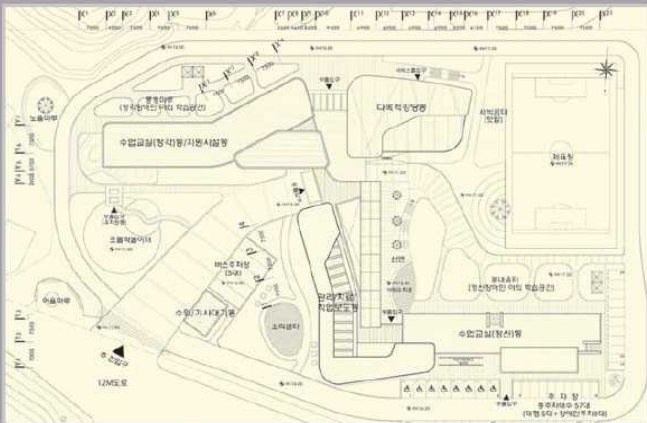
당선작

(주)삼진 건축사사무소 이봉수, 이형호 건축사
 대지위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외 50필지 일원
 대지면적: 28,71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연 면 적: 1,398.94㎡
 건축면적: 4,516.13㎡
 층 수: 지상 2층
 최고높이: 9.9M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광주 선우학교 등 3교(수완8초, 신용중) 학교신설 설계공모

수완8초 당선작 ▶

(주)에이엘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494
 대지면적: 11,997.7㎡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연 면 적: 7,887.99㎡
 건축면적: 2,907.84㎡
 층 수: 지하 1층/ 지상 4층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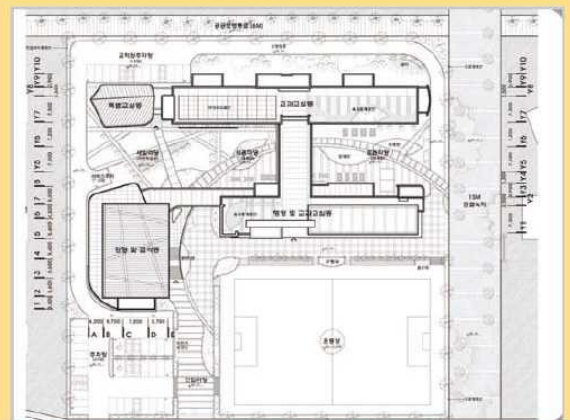


▶ 선우학교 당선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종일 건축사
 대지위치: 광주 북구 일곡동 482-5일원
 대지면적: 17,20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연 면 적: 10,371.49㎡
 건축면적: 3,266.01㎡
 층 수: 지하 1층/ 지상 4층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신용중 당선작

(주)그룹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71-9
 대지면적: 12,155㎡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연 면 적: 10,411.68㎡
 건축면적: 2,888.91㎡
 층 수: 지하 1층/ 지상 5층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강당등)



전남대 건축학부, IFoU 정회원으로 가입

- 향후 국제적인 교육과 연구에 소속 교수, 학생 참여 확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학부장 송진규)는 2011년 2월 23일 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 (IFoU) 총회에서 회원기관의 만장일치로 IFoU 정회원으로 가입이 확정되었다.

IFoU는 도시설계(urbanism) 및 건축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유수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으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단체로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동경대학교,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국립대만대학교, 델프프공대, 베르를라헤건축대학, 바르셀

로나공대, ETH취리히스위스연방공대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FoU 가입을 통해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세계적인 건축 및 도시관련 대학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학술교류와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IFoU는 학술활동 이외에 학생, 교수의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IFoU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교육과 연구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및 관련 전공의 학생과 교수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이미 2008년부터 IFoU가 주최하는 국제디자인워크숍, 컨퍼런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오고 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예루 학생기자 kimyeru@hanmail.net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 계획건축물부문 참가신청 :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가능성이 구현된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 계획건축물부문 주제는 'Social Interface-사회적 결합'으로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 발표 창작 작품이 응모 가능하며, 응모 자격은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차 작품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1차 심사를 통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kaa.kira.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

조선대 건축학전공, 2011 Open Lecture

- 4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3회

일시	장소	강사	주제
4월 14일(목) 16시	조선대 제1공학관 17층 세미나실	임형남 건축사(가온건축)	서울풍경회합 동점도 도시읽기
4월 26일(화) 16시	조선대 제2공학관 1층 세미나실	이중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기억의방법
5월 17일(화) 16시	조선대 제1공학관 17층 세미나실	안길원 건축사(주유영건축회합)	건축도시설계 해외시장 개척사례

※ 4월 26일(화) 14시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이정기용 추모강연회 (강사: 이중호 교수)

전북대학교, BIM설계 도입

- 졸업 전시회에서 결과물 감상할 수 있을 것

전북대학교 건축학과는 올해 2011년부터 전공 교과인 디지털 설계 과목에 오토데스크사의 Revit을 도입했다.

Revit은 BIM 설계 프로그램의 일종이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D를 활용한 건축설계기법으로 새(현재 사용하는 설계는 2D)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설비 교환 주기,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Revit의 새로운 도입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접한 학생들은 기존의 카드보다 간편하

면서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고 설계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장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BIM 설계는 이미 수도권이나 대규모 설계사무소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으로 취업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학년인 5학년의 경우, 졸업 설계에 BIM설계를 도입함으로써, 9월에 있을 졸업 전시회에서는 그 결과물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임만택 교수, '친환경건축' 등 개정판 출간

- '건축환경학' 개정판도 함께 펴내



등 건축할 때부터 해체할 때까지 모든 자원을 재활용을 고려한 건축의 방법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 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을 보전하고, 청아울려 환경에의 부하가 작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건축의 구현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친환경 건축의 전문가인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임만택 교수가 '친환경건축'과 '건축환경학' 개정판을 출간했다.

'친환경건축'은 바람직한 친환경건축을 위한 방법과 기술로서 계획, 관리, 이용, 창조 등이 탐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건축에는 환경에의 부하를 경감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도입하는

'건축환경학'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실내환경과 도시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기초가 되는 학문분야를 다룬 책이다. 물리적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의 외부환경인 자연환경과 건축의 여러 가지 내부 환경에 걸쳐 그 개념 이해를 비롯하여 실험, 측정 분석, 평가, 적용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위의 책 모두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특보● 잘못된 만남



통쾌함에 '나는 가수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드디어 첫 번째 탈락자가 발표 되었다. 김건모.

후배들의 재도전을 받아들이며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랐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취지와 원칙을 위해, 담당 프로듀서의 경질과 더불어 김건모는 시청자들의 도마 위에도 오르게 되었다.

인간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언제 시작할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한 부분 이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김건모는 그것을 간과하였고 성념과 욕망과 무지의 세 가지 독약을 모두 마셨다.

시청자는 김건모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원했지만 결국 잘못된 만남이 되고 말았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식 학생기자 archilly@nate.com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를 보았다. 얼마 전 종영한 케이블 방송 '슈퍼스타 K1, K2'를 비롯해 '위대한 탄생', '신입사원'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서바이벌 경쟁을 통해 등수를 매기는 그야 말로 '엘리트 자본주의'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약육강식, 즉 경쟁에서 패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을 확실히 구별 짓는 우리 사회의 체제를 반영한다.

고위직 임원 자녀의 공무원 특혜논란과 때 되면 거론되는 병역비리, 반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의 과정이 투명하다는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 태 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광주건축사회, 제13대 심상봉 회장 취임

- 이 취임식에 앞서 광주언론기관단체와 간담회 가져



제24회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심상봉 건축사가 지난 3월 14일 광주 동구 금수장에서 열린 제13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정식 취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회장 직무를 시작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강남구 회장과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친독엽 회장, 광주건축사회 역대회장, 전·현직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임식을 갖은 광주건축사회 제12대 신정철 회장은 "광주건축사회 회원을 위해 2년 동안 열정적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업적을 남겼고 동시에 부족한 부분 또한 많이 회원님들에게 죄송스러움을 남기고 임기를 마치게 됐다"고 이임사를 통해 밝혔다.

심상봉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집행부에 거는 기대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히며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광주건축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취임식에 앞서 심상봉 회장은 광주지역 언론기관단체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2012대한민국건축사 광주대회를 비롯한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등 향후 2년 간의 실천정책 등을 피력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업무대행자 선정 전산화 시행

- 4월 1일부터 전산화 시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기대

광주건축사회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한, 업무대행자 선정 전산화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광주건축사회 김재성 국장은 "이

번 업무대행자 선정 전산화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 제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변경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행	변경 후 (시행일 : 2011. 4. 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회 방문 접수 ① 신청서 제출 / 접수 ② 업무대행비 납부 ③ 업무대행자 추천 ④ 유선으로 상호간 연락 ⑤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⑥ 검사조서 작성 ⑦ 업무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접속 http://kira.infocube.kr ① 신청서 작성 / 접수 ② 접수확인 / 업무대행비 납부 → 납부확인 후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 수락 메시지 발송 ③ 업무대행자 지정란 클릭 / 업무대행자 지정 → 지정 메시지 감리자와 업무대행자에게 발송 ④ 업무대행자지정서 및 관련서류 확인 → 메시지 확인 후 사이트 접속 ⑤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⑥ 검사조서 작성 ⑦ 업무 완료

*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시사항 570번) 참조
담당자 : 박한식 과장 062)527-8890에게 문의 바람

전남건축사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제26대 회장으로 대운 건축사사무소 윤문곤 건축사 선출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3월 16일 전남 광양 필레모 관광호텔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상(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특히 회원들의 관심을 모은 임원 선출의 건에서 제26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윤문곤 건축사가 선출되었으며 이사에 조성문, 이환영, 장춘기, 감사에 김강룡 건축사가 대의원은 김강수, 조성문, 김성춘, 김기호, 서계원, 이철 건축사가 선출되었다.

한편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전남도 행복마을과 나송권 지방시설주사보를 비롯해 6명의 공무원이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News 광주 건축계 동정

- * 변경 (상호 변경)**
 - 장정수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변경 (상호, 소재지 변경)**
 - 김재도 건축사 / 이공 건축사사무소 → (주)이공디벨로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용봉동 1426-1번지 201호
 - 이수철 건축사 / (주)이수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다스
 - 광주 북구 삼각동 751-1
- * 변경 (소재지 변경)**
 - 양종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형
 - 광주 북구 용봉동 1408-2 3층
 - 유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기원
 - 광주 서구 농성동 374-1 4층
- * 결론**
 - 김 곤 건축사 / 선택 건축사사무소
 - 장남 - 3월 19일(토)
- * 서구청 부고** 박재수 건축계장 / - 4월 5일(화)

전북건축사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제24대 회장으로 이성업 現회장 재선출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3월 17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 2010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에 상(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 총 3개의 안을 상정, 의결하였다.

이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이성업 現회장이 재선출되었으며, 이사 8명과 대의원 9명의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되었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KT전북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News 전남 건축계 동정

- * 전임**
 - 임경희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467-4
 -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467-4
- * 부고**
 - 김형규 건축사 / 가영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3월 04일(금)
 - 조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조
 - 빙모상 - 03월 28일(월)
- * 알림**
 - 여수지역 건축사회 사무소 이전
 - 이 전 일 : 03월 24일
 - 이전장소 : 여수시 신기동 18-13
 - 전 화 : 061)686-7023(변경없음)

전주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 제15대 회장에 (주)라인 종합건축 김남중 건축사 선출



전주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24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5대 회장에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김남중 건축사를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는 재적회원 127명 중 104명이 참석하였으며 2010년도 수지결산(안)과 2011년도 사업계획 수지에(안), 2011년도 회비 수납 기준(안), 임원 선출의 건 등 총 4개 안을 상정, 의결했다.

특히 임원 선출의 건에서 김남중 회장 선출을 비롯한 감사에 우원 건축사사무소 성두호 건축사, 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의 김유천 건축사가 선출되었으며, 총무이사 1인, 이사 11명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에게 일임토록 했다.

News 전북 건축계 동정

- * 임회**
 - 임애라 건축사 / 라인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2-2 3층
 - 이효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형원
 -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63-5
- * 변경(상호 변경)**
 - 김완중 건축사 / 완 건축사사무소
 - (주)길 건축사사무소
- * 변경 (소재지 변경)**
 - 장기중 건축사 / 지산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7-3
 - 이 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건사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7-3
 - 정영기 건축사 / 예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55-2
- * 부고**
 - 최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 빙부상 - 2월 20일(일)

광주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경성대 최강림 교수 '문화로서 도시를 읽는 방법'이란 주제로



광주시에서는 지난 3월 3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최강림 교수를 초청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로서 도시를 읽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한국의 도시 디자인 추진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광주

시의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조성방향과 함께 건축·광고관련업체가 추구해야 할 도시디자인 방향,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의 시민 참여방안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최강림 교수는 이날 강연회를 통해 "건축과 디자인의 절묘한 조화로운 광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강림 교수는 서울대에서 도시설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도시계획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과 국토해양부 도시대상 평가위원 등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한 도시디자인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층 이하 신축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기로 추진

- 광주 내진설계 비율 전국 2위, 전북 3위, 전남 6위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의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2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건축기준적합평정 자격자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은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위 설명과 같은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16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총 1백1만53동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16만 4321동으로 전체 대상 건축물 중 16.3%에 불과했으며 이 중 광주의 경우 전체 내진설계 대상 2만 4397동 중 22.1%인 5385동이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내진설계 비율 22.6%인 경남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고 전북은 21.2%로 울산과 함께 3위, 전남은 19.7%로 6위를 차지하였다.

일본대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기탁

- 광주건축사회, 모금액 5백만 원 광주시에 기탁

광주건축사회는 일본대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자율모금 운동을 펼쳤으며 협회지원금을 포함한 모금액 5백만 원을

4월 5일 광주시에 기탁하였다. 다음은 이번 일본대지진 피해돕기 성금기탁자 명단이다

성명	사무소명	성명	사무소명
심상봉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강필서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곽영경	간토 건축사사무소	차은영	건축사사무소 시명
강현구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강석훈	건축사사무소 선명
신찬균	건축사사무소 우창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상채	건축사사무소 초석	오영훈	하람 건축사사무소
김선영	일우 건축사사무소	양상훈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휴환	수전 건축사사무소		

도시형생활주택 호남권 설명회, 광주서 개최

-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위한 목적

지난 3월 15일 광주 북구 그랑시아 웨딩타워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지방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광역·기초단체 주택관련 업무 담당자와 건축사, 주택·갈리업체공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설명회는 소형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광주 개최를 시작으로 강원·충청권은 대전에서, 수도권은 서울에서, 영남권은 부산에서 연달아 진행되었다.

광주건축사회 단신

홈페이지에 '회원고충처리'란 개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기 위한 고충페이지가 개설되었다.

광주 건축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게재 가능하며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접속 후, 오른쪽 하단 배너란의 '회원고충처리'를 클릭하면 된다.

고문변호사, 윤춘주 변호사 재 위촉

지난 2010년부터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서석 윤춘주 변호사가 올해도 1년간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어 회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3월 21일 이사회의를 열고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안을 상정하여 윤춘주 변호사를 재위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명 : 윤 춘 주
2. 소 속 : 법무법인 서석
3. 위촉기간 : 2011.4.1 ~ 2012.3.31(년)
4. 연 락 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사무소 : 062)226-7400, F A X : 062)225-5310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문근, 이성엽
편집인: 박승근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성호, 송명옥, 김기범, 정영범, 정관석,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100만 원
장 병 업 | 초석건설산업(주) 100만 원
정 태 호 | 건축사사무소 영일빌 20만 원

건축문화 사랑

표 / 지 / 설 / 명

지리산 화엄사 빛나무

남도 지리산 자락 고찰 화엄사 깊은 산중 찬바람 겨울을 이겨낸 빛나무 어김없이 봄은 찾아와 우리를 맞이한다.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향)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예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산속에서

에베레스트 상보체(3,880m) 트레킹

최진호 건축사
우형 건축사무소



일상을 모두 뒤로 하고 에베레스트 상보체 트레킹 일정을 네명이 길을 나섰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사람과 화물칸의 구분이 없

는 아주 낡은 경비행기에 몸을싣고 약 30분을 타고 가니 청백에 병풍처럼 펼쳐지는 히말라야 산맥 만년설의 영봉들이 파노라마처럼 환히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잠시후 에베레스트 누크라공항(2,840m)에 도착했다. 활주로 길이가 400m정도 밖에 안되는 고산지형을 이용한 공항이다.

착륙 할때는 오르막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이륙할때 내리막으로 가속력이 붙는다. 활주로 끝 아래는 아찔한 절벽으로 자연스럽게 이륙하게 되지만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매우 위험한 공항이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처음 접하는 히말라야 산신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르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모아본다. 석회질 성분 때문에 우유빛을 띠고 있는 두루코시강 강줄기를 따라 굽이굽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계곡길이다. 무릎이 아파오고 고산증세로 쉬어가기를 반복하면서 걸었다. 짙을 가득실은 야크, 상상하기도 힘든 무게의 짐을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포터들, 유럽에서 트레킹은 여행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여행자 모두 산길을 힘겹게 걸었다. 경사가 가파른 길로 접어들면서 시원한 조망과 함께 신성하고 평화로운 남체마을에 도착했다. 남체(3,440m)마을은 비탈을 깎아만든 네팔의 대표적 바자르(전통시장)이며 토요일만 되면 티벳과 인도 인까지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전통장이 선다. 티벳인들은 7일동안 걸어서 오며 산인들은 추운날씨인데도 얇은 천막하나라도 노숙을 하며 장사를 한다. 남체마을

은 관광객을 위한 롯지(여관)를 많이 짓고 있었다. 조망을 한눈에 바라보며 경사진 능선을 오르다보니 경이적인 종교적 신앙심으로 새겨진 마니월(mani wall)을 지나 산정상 상보체(3,880m)에 도착했다.

날씨와 산신의 도움으로 상보체(3,880m)에 있는 에베레스트뷰 호텔(3,900m)에서 에베레스트, 아마다블람, 로체사르, 강데카, 탐세루크의 만년설로 덮인 봉우리가 빨갛게 물들어 산불이 난 것처럼 황금색양 빛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과 아쉬움을 남기고 10시간의 강행군을 하여 누크라마을에 도착했다.

다음날 다행히 날씨가 쾌청해서 경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한다. 깊은 산중이라 기상이 악화되면 날씨가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운이 좋았다. 출발지인 카투만두 공항으로 돌아와 하루정도 시간이 있어 카투만두 시내관광을 했다. 우리나라 50,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비포장도로와 정연되지 않은 도시, 색을 덜 탈한 자동차,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했다. 몇십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개발되지 않은 모습이다.

인도와 중국 티벳 사이에서 히말라야산 분지에 뿌리 내린 네팔, 삶은 빈곤과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우리 일행은 외곽 한적한 곳에 있는 호텔에서 마지막밤을 보냈는데, 카투만두 야경은 몇군데 불빛을 빼고 여두 검렘했다.

카페에서 7일 동안의 여정에 대한 정담을 나누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 심란하기도 했지만 나의조국, 가족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현실에 갇혀 높은곳에 오르고 싶어질때 마음속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의 깃발을 꽂아보도록 하자.

●● 한편의 시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가슴 두근거리며 간직한 작은 비밀 하나
둘만이 알고 있는 암호상자 속에
원죄를 저지르고 축배를 들
그런 사람 하나 그리운저녁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 위하여
가슴 설레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고독한 밤 밤하늘의 별을 헤며
함께 손 잡고 시를 낭송하던
그런 시대는 가고
TV, 컴퓨터가 사랑하는 이의 눈빛을 앗아간 시대

둘만이 알고 있는 외로운 달래기 위하여
함께 바라보며 웃어주고
함께 바라보며 울어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쉴 수 없다면
죽는 날까지 숨을 죽이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뒷골목

모두가 잠든 저녁
심장이 멎도록 다디단 사랑 위하여
가진 것 다 쓰고 후회하지 않고
가진 것 다 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 權岩 유영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Book **건축을 향하여**

건축을 향하여

서명: 건축을 향하여 / 저자: 르 꼬르뷔지에 / 출판사: 동녘

김영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생)



건축가의 꿈을 가지고 마음먹었을 때 건축의 세계로 입문하여 '르 꼬르뷔지에의 형태분석'이라는 책을 통하여 습작을 통해 그를 처음 접하였던 기억이 아른거린다. 그때는 건축은 무엇인가? 건축이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지 못한 나에게, 우연찮은 기회로 그가 쓴 '건축을 향하여'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건축의 천재라는 별명답게 백여 년이 지난 그의 저서에서 현재의 건축물들을 소상하게 말하고 있다. 단순히 치장에만 불과한 장식들을 병적으로 거부하며 모든 사물들의 그 역할에 맞게 변형되듯이 건축물 또한 우리 생활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 관점에서 주택은 살

기위한 기계라는 명쾌한 결론을 르 꼬르뷔지에는 내렸다. 다소 현재에는 너무 과포화가 되어버린 아파트의 형식을 미래의 해답으로 제시한 내용에는 많은 반론이 나오겠지만 다락방이 꼭 있어야 저택이 되고 천정과 문에 화려한 장식이 중시되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 나온 해답이라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다 혁명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 자신의 선언과도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건축의 사고방식을 전달하고 있다. 마치 건축을 더 이상 거창한 무언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젊은 시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혹은 건축의 가장 핵심에 다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 핵심은 '삶'이다. 특히 그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함께 도시화와 노동자의 밀집화로 인한

주거(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들의 대량생산과 같이 주택도 대량생산이 필요하고, 비행기와 자동차, 대형 여객선을 예로 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회에서 1900년대 초에 주장한 그의 말에 여전히 설득력이 느껴질 정도이니 당시로서 그의 주장이 매우 파격적이었을 것이고 더불어 집요한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은 커다란 논쟁을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에서 그림들을 토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르 꼬르뷔지에의 책이 어렵기도 했지만 나 또한 훌륭한 건축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책이었고, 다시금 건축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책이었다.

건축사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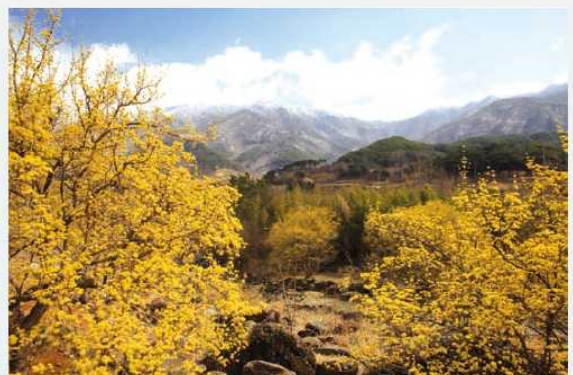


유재순 15호

첫눈
여명의 아침 정겨운 동네에 첫눈이 왔습니다.
고향 산위에도, 교회에도, 주택에도, 아파트에도
차분히 쌓여갑니다.

뉴텍 건축사 사무소 김선재 작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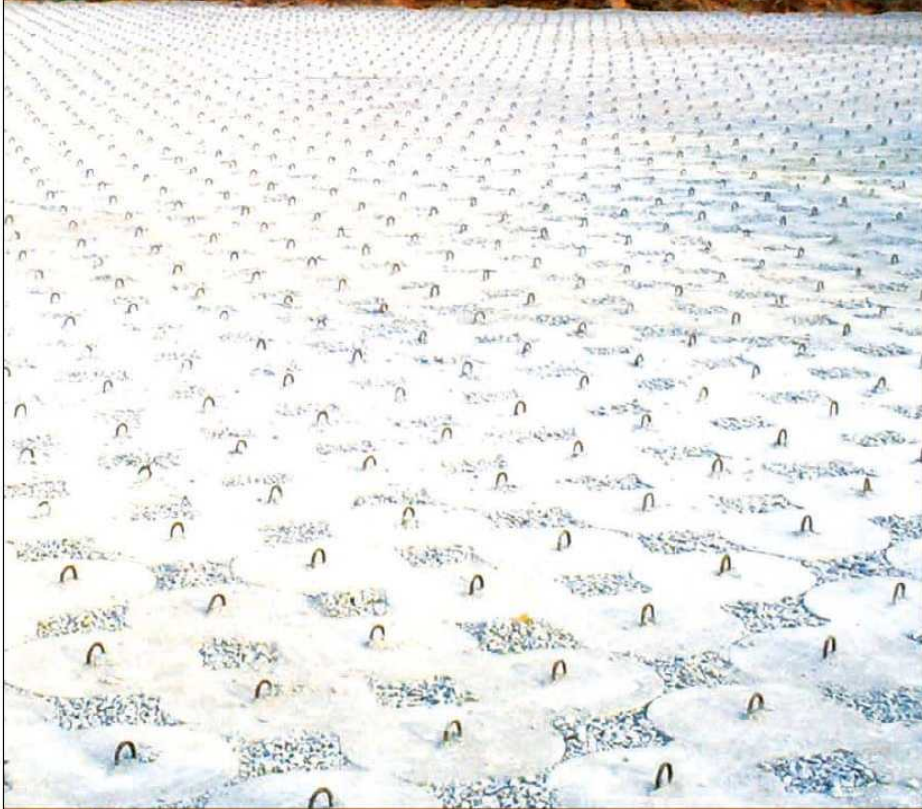
구례 산수유
긴 겨울을 참아내어 더디 핀 산수유를 시샘하듯
지리산 만년대에 삼고대도 피어났다.
은 가슴 가득 색노란 봄의 정기로 가득 채워 지시기를...

이재현 한국농어촌공사 前 함평지사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팽이 기초 공법

중·저층 건물의 지지력 증대와
침하억제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경제적인 기초 공법



시공사례



동구국민체육관



전남대 바이오하우징



동신고체육관



건국대 제2민자 기숙사



군산인력개발원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RIVER CLACK
THE FLAT ROOF METAL COVERING SYSTEM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공법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실적보다는 미래의 VISION을 제시하고 실행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을 위해 책임있는 설계품질, 시공품질, 최고의 품질경영과 기술개발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병 업



나주 국민체육센터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장흥 우산도전망대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무주 반딧불천문과학관



광주 국악전수관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전시관



부안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부천 가톨릭대학교 150주년기념관



청도 솔리움타운하우스



치평동 근린생활시설



돌출이음



각형돌출이음



평이음



가락이음



리빌패널



골패널

소재 티타늄-아연판(ZINK), RIVER CLACK, (산화)동판, AL SHEET(지붕재, ECOTEEL(접합강판), 링클수지강판, 스테인레스(지붕재), 칼라강판, 고밀도목재패널



초석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구영드림빌 613호
TEL.(062)381-1138 FAX.062)381-1139